

일상에 대한 철학적 진단과 그 탈출에 대한 소묘

‘일상 즉 卽 구원’

글_윤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



《일상의 모험》 서동욱 지음 | 민음사 | 396쪽 | 값 18,000원

이미 문학과 철학계에 등단한 지 10년의 관록을 지닌 철학자인 서동욱 교수(이하에서는 “저자”)의 새로운 저작이 빛을 보게 되었다. 철학계에서 저자는 《차이와 타자》(문학과 지성사) 《들뢰즈의 철학》(민음사) 을 통해 단단하면서도 만만치 않은 글쓰기를 해왔으며 몇몇 들뢰즈 및 레비나스의 원전들을 충실히 옮기는 작업도 병행해 왔다.

‘일상의 모험’이라는 제목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에 대한 철학적 모험’ ‘일상의 철학적 구원’ 쪽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결례와 오독을 무릅쓰고 더 간단히 저자의 일상론을 압축한다면 ‘일상 즉 卽 구원’이라는 것이다. 일상 대 卽 비일상, 세속 대 성스러움, 평범함 대 비범함의 선택지에서 늘 철학은 후자들과 짝짓기를 해왔다는 -때로는 정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비난을 받아 왔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고자하는 일상은 부정과 지양, 제거와 단절의 대상으로서의 일상이 아니다. 일상 전체에 대한 도매금의 부당한 취급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일상의 또 다른 층위가 권태와 이기적인 일상에 대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숨기고 있다는 점을 부단히 해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구원은 일상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일상안의 구원을 위한 (철학적) 모험이지 결코 일상을 초월한, 탈일상적 구원을 꿈꾸지 않는다. 더구나 일상이 파편적이고 무순서적이고 무원결적인 만큼 구원도 다원적이고 특이하며 환원 불가능의 성격을 띤 ‘체계 없는’ 구원이게 된다.

하지만 저자가 유람하는 일상의 리스트(소통, 잠, 자기기만, 유행, 춤, 예언 등등)가 언뜻 카오스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일정한 방향을 잃은 것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오히려 정연하고 정제되어 있으며 나름의 통일성 - 이 단어에 혐의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일관성’ - 까지 띠는 듯하다. 하나의 책과 그것도 하나의 이름아래에 동거할 수 있는 ‘가족유사성’을 띤 일상과 구원이라고 일단 해두고 넘어가자. 그럼 속살을 좀 들여다보자.

미증유의 인터넷 시대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모든 말함과 이에 대한 응답은 철학적 사유의 은밀한 기원이며, 주체의 탄생은 예고하는 구원의 사건일수 있으며, 주체의 자기 폐쇄성을 벗어나는 ‘모험’ 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잠”은 어떤가? 잠은 더 이상 의식의 부정태나 기능정지가 아니라, 의식의 조건이자 모태 이며 심지어는 -카프카의 예

시처럼- 변신의 조건이기까지 하다.

“자기기만”에서 드러나는 욕망의 부정은 그 기만의 표층적인 차원에 불과한 것이다. 욕망의 긍정이 더 심층적 차원을 자리 잡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화장(化粧)은 결핍적인 육체의 부정과 은폐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즉 기만 작전이 아니라, 그런 육체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관심, 긍정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끔 등장하는 맨 얼굴의 배우들은 은 자기공정을 넘어서 자기과시에 가깝다고 말하면 어떨까? 여하튼 저자가 인용한 칸트 선생님의 지적은 옳은 뿐 만 아니라 훌륭하기 까지 하다.

“누구라도, 부정이 아닌 긍정위에 기반 하지 않고서는 그 부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태생적인 맹아는 어둠이라는 개념을 조금도 가질 수 없다. 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식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모른다. 전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간음한 여인을 두고 예수가 한말이 무엇이던가? 죄없자가 이 연인을 돌려 쳐라 이든가? 바꾸어 보면 무죄한 자만이 죄를 저지룰 수 있고 죄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할 지도 모를 일이다. ‘죄 없던 아득한 그때’(in illo tempore)의 기억은 순수한 인간됨의 전폭적 긍정이 되어서 둘을 든 위선과 기만을 전복시키고 아연케 하는 게 아닐까?

책의 미덕을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은 짧은 지면의 제약이 용서하고 허락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분명 텍스트에 대한 배반일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 중에 일부는 저자가 일상과 그 구원을 말하려 하면서도 그것도 지극히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저자가 지닌 당대에서도 뒤지지 않는 풍부하고 훌륭한 철학적 교양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독자의 일부가 표할 수 있는 아쉬움과 불만으로부터 이 저작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철학하는 이들의 전문적인 공동체에게 읽히는 논문 못지 않은 각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게다가 가장 먼저 나오는 각주는 하이데거의 독일어 원전 《존재와 시간》에서 왔으며, 두 번째 각주는 메를로-퐁티의 《눈과 정신》의 불어본 쪽수이다. 현상학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면서도 불어권 인구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Alter> 같은 잡지를 인용하고 참조하는 저자를 보노라면 존경에 가까운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래서 이 책이 일상을 다룬다고 해서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책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불만은 모자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잉함에 대한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확신할 수는 없는 일지만, 저자의 이 새로운 정신의 아들이자 딸인 이 저작의 가장 큰 동력과 위대함은 일상의 권태롭고 이기적인 모습에 대한 철학적 진단과 그 탈출에 대한 소묘이다. 저자가 유령과 노스텔지어, 웰빙, 이름 등등에 대해 말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신념이란 주체가 인간이, 자아가 자신에 대한 배타(排他)적인 관계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 말로 누추한 일상의 이유이며, 이런 자기중심적 및 이기적 관련성으로부터 탈주(脫走)하며 타자와 만나는 것이야 말로 그 일상의 구원의 징후이자 시작이라는 점이다. 바로 그 사실이 “존재”와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존재론, 윤리학 그리고 미학 심지어 정치 철학이 수렴되고 태동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저작은 그런 정말로 친애하는 신념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지 종착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백이 존재하며 독자들이 각자의 몫으로 떠 남아야 할 나머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 저자의 훌륭한 시작을 보았으니 그 시작의 나머지 경주(競走)는 저자 자신의 몫이라고 친다면 저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이 말함과 말 건넨에 대한 우리만의 응답이 독자에게 남은 또 다른 진정한 여백이 될 것이다. **추천**

